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2년 9월 25일(주일) 제1410호



사진은 레바논에서 시리아 난민 아동들과 두란노해외선교회 박정대 선교사.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선교”

올해는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 10월 5일, 미래선교전략컨퍼런스 10월 4~5일

두란노해외선교회(TIM)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했다. 이를 기념하는 감사예배를 드리고,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는 오는 10월 5일(수) 오후 7시 30분에 양재온누리교회 사랑홀에서 드린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에는 이

재훈 담임목사, 한충희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 본부장), 두란노해외선교회 파송 선교사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창립 30주년 감사예배는 감사패 수여, 이재훈 담임목사의 말씀 선포, 두란노해외선교회 미래비전 선언문 선포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는 10월 4~5일에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진행된다. 미래선교전략 컨퍼런스에서는 ‘국내외 선교환경과 한국교회의 선교과제’, ‘새로운 선교환경 변화와 글로벌 선교적 대응’, ‘두란노해외선교회 30년 평가’, ‘온누리교회 선교정책과 두란노해외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의 다음 30년 미래비전과 전략’ 등을 주제로 선교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충희 목사(두란노해외선교회본부장)는 “영혼 구원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헌신한

선교사님들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김필립 선교사는 “선교사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시대 크리스천 모두가 함께 선교하자”고 당부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는 교회개혁과 전방 개척선교를 기치로 1992년 창립했다. 현재 52개국 86개 지역에서 선교사 429명이 사역하고 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9월 28일부터 명동성당 앞

“낙태 없는 세상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 세계적인 낙태 반대 기운동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이 명동성당 들머리 앞에서 9월 28일부터 11월 6일까지 40일 동안 이어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진행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은 기도 봉사자들이 낙태 종식과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는 메시지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기도하는 평화적인 시위운동이다. 온누리교회도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에 동참한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기도 봉사를 온누리교회가 담당한다.

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기도 봉사자로 참여하고 싶은 성도들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2-3215-3313

/ 정현주 기자

‘첫사랑, 은혜의 시작’

2022 장로수련회... 장로, 권사, 교역자 470명 참석

온누리교회 장로들이 3년 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2022 장로수련회가 ‘첫사랑, 은혜의 시작’을 주제로 지난 9월 23~24일 강원도 정선 하이원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온누리교회 장로, 권사, 본부장 교역자 등 470명이 참석했다.

2022 장로수련회에서는 힐링과 쉼, 예배와 교제, 리더십의 사명과 비전, 친목을 도모하는 자리였다. 장로수련회는 개회예배, 임성빈 교수(前 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주제특강1, 신입장로회 특순, 조별 QQ 및 주제토의, 최성민 목사(SNS청년부) 주제특강 2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재훈 담임목사는 개회예배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를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첫사랑과 종의 마음을 회복하고 섬길 때 온누리교회가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 쓰임 받을 것”이라고 권면했다.

홍성호 장로(서기장로)는 “혼돈의 시대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되새기고, 함께 교제하며,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장로수련회가 된 것 같아 기쁘다”고 했고, 박균명 장로(장로수련회 준비위원장)는 “이번 장로수련회를 통해서 장로로 처음 장립됐을 때의 다짐과 결심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소망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9월 25일까지 헌금 및 대상자 선정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 헌금 및 대상자 선정을 9월 25일(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사르밧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싶은 순이나 성도는 6만5천 원(쌀 20kg)을 헌금하면 된다. 각 공동체에서는 사르밧 프로젝트 대상자를 선정해 담당사역팀(서빙고, 양재이웃사랑팀)과 목회지원실(각 캠퍼스)에 제출해야 한다.

외부 기관이나 단체를 추천 할 때는 사회선교본부와 협의해야 한다. 10월 말부터 ‘감사의 쌀’이 배송될 예정이다. 배송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올해 추수감사절 ‘사르밧 프로젝트’에는 경상남도 진주시 ‘초원교회’, 경상북도 구미시 ‘명곡교회’, 충청북도 보은군 ‘회남교회’, 전라남도 구례군 ‘광의교회’, 전라북도 정읍시 ‘신대인중앙교회’, 충청남도 홍성군 ‘나눔의교회’가 참여한다.

문의: 02-3215-3434

/ 김영선 기자

맛있는 말씀 해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 1:16)

룻기서는 총 4장 85절로 구성된 매우 짧은 내용이다. 게다가 45절도 대화 내용이 주를 이룰 정도로 이야기 전개가 빠르고 박진감 넘친다. 룻기는 6주 동안 보리와 밀의 추수기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독일의 괴테는 “성경 가운데 룻기만큼 감동적인 사랑 이야기를 읽어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극찬한 바 있다.

어떻게 한 개인의 불행한 가족사가 우리에게 커다란 은혜와 감동을 주는 정경(正經)으로 자리 잡게 되었을까? 이를 알기 위해 룻기의 배경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룻기는 모압 여인 룻이 베들레헴 지방의 이스라엘 가정에 시집오게 된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했던 가정이 10년쯤 지난 시점에 정확히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나옴의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차례대로 잃는 비극이 발생한다. 이 일로 하루 아침에 세 과부(시아머니 나옴과 그녀의 자부 오르바와 룻)만 남게 된다. 어느 날 나옴

은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잊고자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다. 자신을 자책하며 괴로워하던 나옴이 며느리들을 불러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 살 것을 권면한다. 이에 오르바는 고향으로 돌아가지만, 룻은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어머니 나옴을 홀로 두고 떠날 수 없어서 끝까지 함께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선사한다(룻 1:16-17). 여기서 독자들이 은혜를 받긴 하지만, 궁금증이 유발되는 대목이다. 모압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간 다른 자부 오르바와 달리 끝까지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룻기가 우리에게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일까? 아니면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을 잃은 시어머니를 인간적으로 측은하게 여긴 룻의 효성(孝誠)이 작용해 문학적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것일까? 둘 다 틀리다 말할 수는 없다. 하지만 룻기가 우리에게 매우 특별한 감동을 주는 까닭은 그 것을 넘어 한 이방 여인 믿음의 선택이 다윗

왕조를 일으켜 세우고, 그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해석이다. 룻기가 구속사적으로 볼 때 절망과 희망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는 300년 동안 온갖 위상승배와 타락으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있었다. 룻기는 똑같은 사사시대에서 영적인 희망을 제시하고, 다윗 왕조를 내다보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룻의 선택과 결단은 평범하지 않다. 비범한 은혜의 결정이었다. 따라서 룻기는 우리 모두에게 효 이상의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이 더욱 설득력 있다. 모든 구약적 이야기가 반드시 신약의 예표나 그림자로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구약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오실 메시아의 통치와 다스림을 앞서 보여주는 사건 내지는 선험적인 사례(illustration)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히브리서 기자도 이런 해석을 뒷받침하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히 11:1~2)고 말하고 있다. 혼란스러운 사사 시대에 한 가정의 슬픔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과 변하지 않는 신실함(헤세드)을 구속사의 관점에서 엿볼 수 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나옴 가족은 친족 구원법인 고엘제도를 통해서 기업 무를 자 보아스를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룻기 4장 17~22절에서 보이듯 믿음으로 살아간 룻은 가족사와 다윗의 왕조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기에 정경(正經)적인 가치가 보석처럼 영롱하게 빛나는 것이다.



김상수 목사
(대전온누리교회)

〈생명의 삶〉 QT 프리뷰(Preview)

야곱을 단련하시는 베엘의 하나님

9월 26일~10월 2일
창세기 28:1~30:24



목상포인트 1: 베엘은 야곱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곳이기 때문이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는 과정에서 허물이 컸는데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하시며 그의 길을 인도하신다. 베엘

의 하나님과 야곱의 서원을 묵상하자.

▶이삭이 야곱을 하란으로 보내는 명목은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찾으라는 것이다. 멀고도 두려운 길을 홀로 떠난 야곱은 한 곳에서 돌을 베고 잠들었는데, 하나님의 사자(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꿈을 꾀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과 후손을 약속하시며,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다. 잠에서 깬 야곱은 베고 자던 돌을 세우고 ‘베엘’이라 한다. 그리고 자신을 평안히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십일조를 드리겠다’고 서원한다.

목상포인트 2: 사람 시각에는 우연처럼 보여도 하나님 섭리 안에서는 필연이다. 하나님

의 섭리로 야곱은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다. 그리고 자신보다 더 탐욕스러운 라반과 함께 지낸다. 야곱에게 라반은 그의 모난 성품을 단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인생 채찍과도 같은 존재다. 야곱의 결혼과 라반의 술수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자.

▶야곱은 하란의 어느 우물결에서 양 떼를 몰고 오는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다. 야곱은 라반의 집에 머물며 일손을 돕는다. 한 달이 지나자 라반은 야곱에게 보수를 주겠다고 하고, 야곱은 보수 대신 라헬을 아내로 요청한다. 라헬을 사랑하는 야곱은 7년을 며칠 같이 여기며 봉사한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결혼식 때는 신부 얼굴을 볼 수 없었다. 야곱은 신부가 레아인지도 모른 채 합방하고, 아침이 되어서야 속은 것을 안다. 야곱은 7일 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 라반 밑에서 다시 7년을 일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라반 밑에 두시고 신실한 사람으로 단련하신다.

목상포인트 3: 라반의 속임수로 야곱이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는다. 그리고 두 아내의 자녀 출산 경쟁으로 두 시녀까지 야곱의 아내가 된다. 갈등하는 야곱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과 야곱의 자녀 이름에 담긴 영적 의미를 묵상하자.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셔서 위로받게 하신다. 르우벤(보라 아들이라), 시므온(들으심),

레위(연합함), 유다(찬송함) 등 자녀들 이름에는 레아의 마음이 담겨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레아는 남편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한다. 라헬은 자녀가 많은 언니를 시기한다. 라헬의 여종 빌하가 야곱의 아내가 되어 단(억울함)을 푸심, 납달리(경쟁함)를 낳는다. 레아의 여종 실바도 야곱의 아내가 되어 갓(복됨), 아셀(기쁨)을 낳는다. 라헬은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가져온 합환채(가귀나무)를 탐낸다. 합환채를 사용한 라헬은 임신하지 못하고 레아가 임신해 잇사갈(값), 스불론(거함)을 낳는다. 하나님은 출산하지 못해 고통받는 라헬도 잉태하게 하신다. 요셉(더함)을 낳은 후 라헬은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고백한다.

적용을 위한 가이드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곳, ‘나의 베엘’을 떠올려 보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다짐하자. ▶라반이 야곱을 단련하듯,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기 위해 붙이신 사람은 누구인지 돌아보자. 성품과 신앙 면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도록 기도하며 순종하자.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욱 사랑하심을 기억하자. 사람에게 집중하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 하나님을 찬양하자.

/ 〈생명의 삶〉 편집부

온누리가 함께 하는 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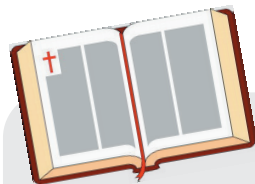
어느 형제를 위해서!

CGNTV 중보기도팀에서 기도하는 후원자님의 기도제목과 보고 꼭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바람에 기도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름을 밝히기 조심스러워 익명으로 기도 부탁드립니다.

A형제는 4년 7개월 동안 암에 걸린 어머니를 간병했습니다. 욕창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꾸준히 기도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A형제 어머니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A형제는 간병하던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깊은 우울감과 고독감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술과 담배를 의지하고 우울증까지 왔다고 합니다. 상실감을 알코올과 니코틴이 아닌 하나님의 위로 속에서 잘 이겨내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교회에서 받은 상처로 교회를 떠난 지 38년 된 A형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남의 체험을 주시고,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교회를 떠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왔고 다시 주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A형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영·혼·육의 강건함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도록 기도해주시시오.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주시시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완전함과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라고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로 끝납니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는 선언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1절은 “아무것도 없다”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정죄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39절도 “없습니다”라는 단어를 강조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고, 결코 끊을 수 없다는 그 사이에서는 결코 패배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의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성도들의 구원이 단순한 소원이나 소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온전한 구원, 영원한 구원이라는 확신을 줍니다. 이 확신은 로마서 7장에 나타난 성도의 탄식과 대조를 이룹니다. 7장에서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 8장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전이 됩니다. 이것을 시편 23편에 대입해 보면 7장에 나타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로마서 8장의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시편 23편의 마지막 구절인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구절에 대입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성도의 거룩한 탄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면, 로마서 8장에서 성도의 영원한 안전은 “여호와와 그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

로마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안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별명을 붙인다면 ‘성령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나 다른 로마서에는 성령의 은사를 중심으로 설명했고,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했다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령님이 직접 행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암송을 많이 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성령님이 행하신 일들을 요약하면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시키신다”(2절), “율법의 요

구를 이루도록 도우신다”(4절), “육신의 행실, 몸의 행실을 죽이도록 도우신다”(12절), “하나님의 입양된 자녀들이 상속자임을 증언하신다”(16절), “성도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신다”(26절), “성도가 영화롭게 될 것을 보증하신다”(30절)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은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것을 증언하시고, 확신하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과 11절이 그 출발이 되는 진리를 말씀합니다. 그 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1~2절).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으로 죄 없는 자로 여겨지는 ‘칭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첫째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정죄가 취소되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과 6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입니다. 그 대상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옛사람이 함께 못 박힘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과 연합해 부활 생명이 있는 자, 믿음으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고, 기쁨과 확신이 없습니다. 죄의식에 빠져 죄책감으로 봉사합니다. 두려워서 섬기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 율법적인 생활, 나아가 종교가 종속되는 것은 1절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복음입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 나와야 그 이후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은 로마서 7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안에서 자유

로마서 8:1~11

“우리는 정죄 받지 않았기에 자유롭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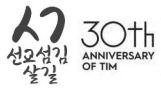
로마서 8장부터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함이 없다’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구원은 정죄 받지 않는 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죽음의 법’이라는 말씀에서 ‘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리와 방식을 의미합니다. ‘영향력’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에서 해방되어 이제 그리스도께 연합되었다는 것을 체험하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을 체험해야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성령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되시고, 우리를 의롭다하시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죽음을 통과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나눠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부활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의 원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했습니다. 죄와 율법의 굴레에 사로잡혀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인하여 연약해져서 할 수 없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보내셔서 육신 안에서 죄를 심판하셨습니다”(3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 아들 안에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얽매고 있던 죄와 죽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죄가 있는데 눈감아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심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인데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심판을 받은 자이기에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노예 생활하던 히브

리 민족이 의기투합해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들의 인간적인 노력으로 민족의 승리와 쟁취를 이룬 역사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바로가 그의 백성들을 내어주지 않았을 때 열 차례 재앙이 있었고, 그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처음 난 것을 모두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의 처음 난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처음 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든 어떤 민족이든 애굽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가정에 처음 난 것은 죽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는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이 약속을 믿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재앙이 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당시 최대 강국이었던 애굽에는 수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도 이 약속을 듣고 따른 자들은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 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개역개정에서는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현했습니다(출 12:38). 그 단어를 나중에는 ‘다른 종족들’, ‘다른 여러 민족들’로 바꾸었습니다. 모세의 아내가 다른 민족 아닙니까? 출애굽은 이스라엘 민족만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된 민족이었지만 다른 민족들도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승리 역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모형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에 있음을 보고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된 것입니다. 피는 죽음을 의미하고, 죽음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고, 그 제물이 그 집의 장자에게 심판이 집행된 것으로 여기고 넘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그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의 심판을 이미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것이 로마서 7장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지만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복음을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13면에 계속>**

두란노
해외선교회

두란노해외선교회 30주년 기획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선교합시다”

선교사들이 진정한 영웅 성도들에게 보내는 당부



두란노해외선교회가 걸어온 30년의 역사에는 늘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함께했다.

두란노해외선교회(TIM) 30주년의 주인공이 누굴까? 영광 받으실 하나님과 선교사들 아닐까? 가장 축하받고, 공로를 인정받아야 할 사람을 주인공으로 선정하는 게 옳기 때문이다. 그 주인공들을 보고 싶었다. 그래서 두란노해외선교회 소속 김필립 선교사(남아시아 B국), 이바울 선교사(서아시아 C국), 강모세 선교사(동아시아 C국)를 만났다. 그들은 선교지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선교에 헌신한 영웅들이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두란노해외선교회 30주년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했다. 선교사들은 한 목소리로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선교하자”고 당부했다.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제가 2005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는데 당시에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가 선교사로 헌신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정말 뜨거웠습니다. 교회에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으면서 성도들이 하나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당시 저는 선교의 ‘사’자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2003년 아프간으로 첫 아웃리치를 갔는데 같이 간 팀원이 선교사로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참 신기하다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제가 선교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김필립 선교사(남아시아 B국) 가정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뜨거운 축복을 받으며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다. 꿈에 그리던 선교지에 도착했는데 온누리교회와 분위기가 정반대였다. 반기는 사람은 고사하고,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이슬람 땅에 덩그러니 떨어진 것 같았다.

“이슬람 지역에 간다고 수염도 기르고 만반의 준비를 했습니다. 당시 피랍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고, 교회와 성도님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떠날 때는 박수를 받고 떠났는데 선교지에 도착해 보니 아무도 없었습니다. 통신이 어려워서 본국과 연락도 못해서 정말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김필립 선교사가 사역하는 지역은 지금까지 아웃리치 팀이 단 세 번 왔을 정도로 척박한 땅이다. 그곳에서도 사역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했지만, 외롭고 힘든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는데 그는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늘 함께했기 때문이다.

“선교지에 온 지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한국에서 소포가 도착했습니다. 에젤선교회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서 뽑기를 했는데 저희 가정이 당첨됐다면서 보낸 소포였습니다. 라면이랑 식료품 몇 가지를 가득 채워 보내 주셨는데 얼마나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또 2009년 전문인선교학교를 수료한 성도님 세분이 아웃리치를 오셨습니다. 그 아웃리치 이후 남아시아 B국을 위한 기도 모임을 만들고, 14년째 함께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선교지에서 외롭고 힘들면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었습니다. 몸이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뿐이지 자나 깨나 선교를 생각하고, 저를 위해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늘 제 곁에 계셨습니다.”

**지치지도, 멈추지도 않는
선교사들의 영웅 ‘성도님’**

선교사들에게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영웅이다. 이바울 선교사(서아시아 C국)는 지치지 않고, 선교를 멈추지도 않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이야말로 진정한 선교사들의 영웅이라고 고백했다.

“선교사들만 힘들겠습니까?(웃음). 선교지에 있을수록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정말 많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

제가 어려운 적이 한두 번입니까? 요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은 고국의 경기가 어려운 것을 체감해 본 적이 드뭅니다. 늘 후원해주시고, 기도해주시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꾸준히 선교에 참여하고, 후원하고, 중보기도 해주는 게 참 어려울 텐데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지지치도 않고,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선교사들의 진정한 영웅이지요.”

인사치레 고백이 아니다. 이바울 선교사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에 정말 큰 힘을 얻고 있다. 얼마 전 난민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전도집회도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다.

“올해는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 아웃리치로 선교에 동참하셨습니다. 올해 4월부터 숨어서 예배드리시는 이란 형제자매들을 위한 전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수십 명이 참가하는 전도집회를 혼자 준비하려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의문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때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서 20여 일을 중보기도 해주셨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없던 힘이 생겼습니다. 남양주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전도집회를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어디 이번뿐이었습니까? 그동안 제가 해온 모든 사역과 예배 뒤에는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선교의 즐거움과 기쁨

동북아시아 C국에서 복음 전하는 강모세 선교사에게도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중보기도다. 혈기왕성한 파송 초기에는 성도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역 초기에는 성도님들이 현금만 해주시면 사역은 저 혼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알

아서 한다’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 결과가 탈진이었습니다. 첫 팀(Term)을 마치고 국내에 들어왔을 때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친 몸과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회복되었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찾아봤더니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였습니다. 그때의 경험 덕분에 성도님들의 중보기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를 깨닫고, 지금은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선교했더니 십자가의 길 같았던 선교가 정말 재미있고 즐거웠다. 교회개혁, 신학교 및 종교지도자 양성, NGO 사역, 차세대 양육 등 양손으로 세기 어려운 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도 전혀 지치지 않는다.

“성경 말씀이 살아있고, 주님이 일하시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주시는데 어떻게 선교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까? 함께하는 선교는 즐거움이자 기쁨입니다. 요즘은 동역의 기쁨을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아웃리치가 정말 많을 때는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아웃리치가 뜰 줄기면서 아웃리치가 선교에 얼마나 큰 영향이 있는지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두란노해외선교회와 함께 선교해 주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두란노해외선교회와 함께 선교 해주십시오.”

이바울 선교사도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선교하자고 당부했다.

“선교지에 있으면 형제자매들이 살아나는 게 눈에 보입니다. 자빠지고, 나가떨어지고, 배신하는 형제자매도 있지만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는 세상 마지막 날까지 계속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세상 끝날까지 선교합시다!”

People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 목적이 무엇일까? 예수 닮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자체 아닐까? 여기에 예수 전하는 전도의 삶까지 더해지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여기, 금상첨화의 삶을 사는 전도자가 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장소를 불문하고,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열혈 전도자다. 그 주인공은 김미자 권사(양천공동체, 온누리전도학교)다. 전도 생각만 해도 신나고, 눈빛이 반짝이는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다.

내 생일이 3월 16일인 이유

전도 생각만 해도 신나는 열혈 전도자 ‘김미자 권사’

“우리 집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집안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어떻게 증거하지 않고,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제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전도를 생각만 해도 신나고, 마른 영혼에 생기가 돕니다. 전도 이야기만 해도 제가 살아납니다!”

과연 무엇이 김미자 권사를 열혈 전도자로 만들었을까? 김미자 권사의 삶과 신앙이 무척 궁금했다. 기자가 김미자 권사를 알게 된 것은 강창재 장로(온누리전도학교)의 추천 덕분이었다. 강창재 장로가 김미자 권사를 소개할 때부터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도학교 권사님 중에 간증이 차고 넘치는 분이 계십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 없이 일단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 권사님 간증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왜 제가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추천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강창재 장로가 왜 그렇게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김미자 권사의 전도 열정을 알리고, 도전하고 싶었는지를 깨닫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누군가 제게 인생의 목적이 뭐냐고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와 같은 사람들의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이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이 비전의 완수를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내가 다시 태어난 바로 그 날

김미자 권사의 가정환경은 가난과 중독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김미자 권사의 아버지는 알코올중독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가난이 시작됐다. 그녀의 어머니는 농사지으며 남겨진 3남매를 건사했다. 아버지를 일찍 빼앗아간 가난과 중독의 굴레가 3남매에 고스란히 이어졌다. 작은오빠도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중독으로 일찍 소천했다. 설상가상 큰오빠는 공장에서 일하다 손목이 잘리는 대형사고를 당했다. 집안에 불행이 끊이지 않자 김미자 권사의 어머니는 절에 가서 열심히 공양했다. 미신도 맹신했다. 푸닥거리도 하고, 굿도 하고, 부적도 썼다.

기독교라곤 접해 본 적 없이 살아온 김미자 권사가 복음을 듣게 된 것은 결혼하고 나서였다. 이사 집들이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다.

“친구들을 집으로 불렀는데 그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보기에 무분별하게 술 마시고, 세상적인 대화만 하는 우리 모습이 안타까웠던 모양입니다. 그 친구 시누이가 목사와 결혼했는데 우리 동네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 친구가 매제인 목사님에게 저를 전도해달라고 부탁했더라고요. 부탁을 받은 그 목사님이 저에게 참 끈질기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전화도 하고, 문자메시지도 보내면서 끊임없이 전도하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도 귀찮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나갔습니다.”

친구 매제의 성화에 울며 겨자 먹기로 교회에 나갔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복음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가 아랑곳하지 않고 김미자 권사를 계속 전도했다. 하루는 성경공부 모임에 김미자 권사를 초대했다. 바로 그날 다시 없을 충격을 받았다.

“그날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설명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려 주셨지요. 그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 번쩍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구나. 가난과 중독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싶었거든요.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깨달음의 충격이 가시지 않았다. 계속 온몸이 떨렸다. 성령의 역사였다. 그리고 그날 밤 꿈을 꿔다.

“꿈에서 제가 다리 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 다리 밑에서 올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김미자 권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날의 감동과 깨달음을 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생일을 3월 16일로 바꿨다.

“바로 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잊지 않으려고 제 생일을 3월 16일로 바꾸었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제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사는 이유와 목적 ‘전도’

새로 태어난 김미자 권사의 삶이 180도 바뀌었다. 구원받은 감동, 천국의 기쁨을 누군가에



영혼구원과 열방회복이 인생의 목적이라는 김미자 권사. 노방전도를 하고 있는 김미자 권사(오른쪽 하단).

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부터 김미자 권사의 전도가 시작됐다. 가장 먼저 가족들을 전도했다.

“당시 아들과 딸이 어렸는데 제가 교회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아이들은 교회가 뭔지도 모르면서 엄마 따라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이들이 크면서는 ‘공부해라’는 말보다 ‘어떤 일을 하든 사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한다. 그것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다’라고 늘 강조했습니다.”

그 아름다운 양육 덕분일까? 아들은 목사, 딸은 사모가 되었다. 아들도, 딸도, 사위도 모두 생명을 살리는 사역에 헌신하고 있다.

깊은 불심과 미신 맹신자였던 친정엄마도 전도했다. 온누리전도학교에서 배운 5분전도 스킬이 주효했다.

“엄마에게 굿 하지 말고, 부적도 쓰지 말고, 우리가 모시는 신을 바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에는 팔짝 뛰시면서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엄마를 전도할 때 5분전도 전문을 이용했습니다. 5분전도 스킬 덕분에 친정엄마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로 손을 잃은 큰오빠도 전도했다. 큰오빠를 전도할 때는 양천공동체 순맛축전도의 힘을 빌렸다.

김미자 권사는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누구든지 전도했다. 그곳이 병원이든, 길거리든, 직장이든 관계없었다.

“매사에 부정적인 직장동료가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비행청소년 중학생 아들 때문에 근심이 크더라고요. 제가 그 동료의 고민을 들어주고, 일도 도와주고, 다독이면서 위로했습니다. 어느 날 그 직장동료가 저에게 ‘항상 밥 사주고, 남의 일도 도맡아 하고, 어떻게 매사에 그렇게 긍정적인 수 있느냐? 그렇게 부자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이미 천국을 분양받았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 우리 집은 예수 믿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집이다. 당신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그 직장동료를 교회에서 열린 콘서트에 초대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김미자 권사는 온누리전도학교의 5분전도 스킬을 전하기 위해 전국 각지의 교회를 다니는 일도 주저하지 않는다. 전도콜센터 요청을 받고 병원심방도 열심이다. 자신이 경험한 은혜를 전하고 싶기 때문이다.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의 간증과 소망 역시 전도다.

“저희는 시대도, 친정도 예수라고는 국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집안이었는데, 한 사람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것이 씨앗이 되어서 아들도, 딸도, 사위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 빛진 마음밖에 없습니다. 남은 인생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고 싶습니다.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을 위해 오늘도 전도할 것입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집기획 '로대웨이드에서 돛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

① 법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 ② 생명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③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낙태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치운동의 목표

대한민국은 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낙태죄 일부의 효력이 상실되어 입법 공백 상태에 놓여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낙태죄가 명시된 형법 조항에 대하여 불합치 판결을 내린 배경이 된 미국 낙태 합법화 판결(로대웨이드 판결)이 지난 6월 말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뒤집혔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교회와 크리스천의 사명과 역할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25일(목) 서빙고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바른여성선교회(대표 이기복 목사)가 주관하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회'가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서 이상원 교수(전 총신대학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가 '로대웨이드에서 돛스까지 미국 교회와 크리스천의 역할'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이 그 마지막 순서다.

/ 편집자 주



이상원 교수
(전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바른인권여성연합 자문위원)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기독교 생명윤리의 모든 논의는 반드시 임신설 혹은 수정설의 타전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그래야 이념적 대결에서 강력한 논증을 전개할 수 있다. 프로라이프 진영에서 활동해 온 어떤 분들은 임신설이나 수정설을 법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유토피아인 것처럼 생각한다. 또 임신설이나 수정설을 말할 경우 상대방이 아예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의례나 법조계 현장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임신설이나 수정설을 말하지 않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고 실의를 챙겨야 한다는 생각을 피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생각은 함정이다. 현실에서는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법적으로 관철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기준으로 확실하게 붙들어야 한다.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양보하면 상대방과 대화가 통하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극히 소소한 것들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임신설이나 수정설에서 떠나면 굵직한 본체를 잃게 된다. 다음과 같은 잠언 말씀을 유념해야 한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 14:12).

생명의 시작점이 되는 임신설 혹은 수정설

임신설 혹은 수정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의하여 형성된 생명의 시작점이다. 수정설은 현대 생물학이 발달한 뒤에 비로소 확실한 설득력이 생긴 이론이다.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장면은 고배울 현미경을 이용하지 않고는 확인할 수 없는 이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정설과 사실상 같은 이론으로써 생명의 시작점을 가장 이른 시점으로 잡는 임신설이 생물학이 거의 발달하지 못했고, 따라서 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었던 고대 사회에서 확립된 것은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의한 제안이 아니고는 상상

하기 어려운 일이다. 하나님은 기독교인들을 중요한 윤리적 문제에 대해 모호한 상황에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대부분의 중요한 윤리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쉽고 명쾌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길을 분명히 제시하신다. 다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분명한 길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우회하려다 보니 모호해지는 것뿐이다.

‘Dobbs vs Jackson(돛스 대 잭슨)’ 판결이 잘 보여 주는 것처럼 생명의 시작점에 관해 논증을 전개할 때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항상 명시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없을 때라도 반드시 암시적으로 전제하고 논증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강력하고, 일관성 있고, 모호성 속에 빠지지 않는 논증 전개와 실천을 할 수 있다. 임신설 혹은 수정설은 생물학적으로나 유전학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나 성경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불연속적인 생명의 시작점으로 확고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

부동점이기 때문이다. 자기복제와 단백질생성이 수정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생물학적인 특징, 생식세포의 분열부터 엄청난 자리바꿈의 혼란을 겪던 유전자 배열이 수정 순간이 확정되면 그 후에는 변동 없이 영구적으로 유지된다는 유전학적인 특징, 성정에 충실한 초대교부들이 루터, 칼빈, 웨슬리 등과 같은 정통신학자들이 임신설을 채택했다는 교회사적인 관점, 성교의 순간부터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본다는 성경적 관점은 임신설 혹은 수정설이 확고한 논증의 출발점임을 명확히 한다.

범선으로 바다를 항해하던 시대에 밝게 빛나는 앞에 가는 배를 따라가면 표류하지만, 앞에 가는 배의 빛 보다는 덜 밝아 보여도 움직이지 않는 북극성을 기준으로 항해하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처럼 생명의 시작점에 관한 논증과 실천은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규범적 기준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낙태처벌법 제정 운동의 더 중요한 목표

낙태처벌법 제정을 위한 정치 운동의 일차적 목표는 당연히 낙태처벌법 제정이지만, 이 운동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더 중요한 목표를 가진다. 그 목표는 유물론적인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확실하게 구별되는 생명윤리 인식을 가진 기독교인과 교회를 교육하고 훈련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슬람 분리주의 테러리스트들에게 미국의 심장부인 뉴욕과 펜타곤을 공격당한 미국은 본토에 경비를 강화해 예상되는 싸움에 대비한 것이 아니라 거리상으로 보면 본토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역에 있는 중동지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을 전장으로 형성하고 전쟁을 했다. 두 차례 걸친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군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긴 했으나 수천 명 이상의 미군이 전사하는

국 구성원은 기독교인들 가운데 소멸 받은 자들이 되기 마련이며, 후원은 기독교계로부터 온다.

그러나 정치 운동을 포기하고 기독교인 교육에만 치중하는 전략은 너무 소극적이다. 오히려 우리의 전선을 세상 정치의 1번지인 법 제정의 영역에 형성하고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지혜로운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서 임신설 혹은 수정설을 철저히 견지하는 기독교 생명윤리가 운신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최전선이라고 할 수 있는 법 제정의 영역에서 치열하게 싸워 적대세력의 힘을 그쪽으로 끌어 다 놓으면 그만큼 기독교 생명윤리가 조금 더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이 생긴다. 이 사회적 공간 안에서 기독교인들과 교회를 위한 생명윤리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진행해 전사들을 계속 확보해야 한다. 이 공간이 확보되어야 믿음과 생명윤리 인식이 약한 기독교인들을 끌어안으면서 조금 더 수월하게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다. 이 사회적 공간이 없어도 생명윤리훈련이 잘되어 있고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면 소외되는 것을 각오하고 대응하겠지만, 믿음이 약한 대다수 기독교인과 교회는 겁을 먹고 생명윤리교육과 훈련을 외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낙태처벌법 제정 운동을 강력하게 전개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기독교 생명윤리의 규범적 지도에 따라서 세상과는 다른 길을 과감히 갈 수 있는 기독교인들을 키워내야 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생명윤리의 관점에서 기독교인이 가야 하는 길은 수정 순간부터 심장과 폐가 기능을 정지하는 순간까지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므로 배속의 태아든, 혼수상태나 뇌사상태에 빠진 환자든, 깊은 고통 속에 있는 말기 환자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인간의 생명을 자의적으로 종결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는 길이다. 이 길이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기독교인과 교회는 이 길에서 이탈하지 말아야 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세상에 명확하게 보여줘야 한다.

동물과 인간은 동등하지 않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정하자는 법안 발의에 대하여



이상현 집사
(강남E공동체, 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교수)

지난 8월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부모의 생일, 부모를 동반한 가족 모임 등 부모공경을 이유로 ‘부모공경휴가’를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함이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은 그 이름과 달리 반려동물에게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돌보기 위해 ‘가족돌봄휴가’에 준하는 휴가를 연간 최장 5일 인정함으로써 반려동물에게 반려 가족의 지위를 가지는 현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의 휴가권을 보장하고자 한다는 개정 입법 취지를 밝히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반려동물이 단순 사육의 대상에서 반려 목적의 가족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도대체 언제부터 반려동물이 가족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법안이 동물복지와 관련된 법안이 아니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들어왔는지 이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의미

이 발의안에는 인간과 동물은 동등하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이는 세속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세계관을 고수할 때 지극히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론이다. 만약 인간이 원시 수프(primitive soup)로부터 진화한 원자의 무작위적인 집합일 뿐이라면, 인간은 민달팽이보다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창 1:27~28)는 지상 명령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과 동물은 동등하지 않다.

미국의 역사학자 글렌 선샤인(Glenn Sunshine)은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이 지상 명령, 즉 인간이 다른 피조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소명을 가진 존재라는 데서 하나님 형상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천부 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기독교의 교리에서 비롯된다.

‘동물복지’라는 개념은 이 지상 명령에 따라 인간을 나머지 피조물의 관리자로 본 기독교인이 개척했다. 그 좋은 예가 영국에서 ‘동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물을 선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학대방지협회’를 설립했던 윌리엄 월버포스이다. 많은 사람이 노예무역을 폐지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윌리엄 월버포스의 업적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 그는 ‘예외법절의 개혁’이라는 사명도 하나님께 받았다고 한 바 있다. ‘예외법절의 개혁’이란 경건과 미덕을 장려하고 도박, 성매매, 주취, 특히 동물 학대 등의 모든 악덕을 예방하고 처벌하는 것을 의미했다.

월버포스가 살던 당시 영국에서는 주로 일요일마다 개를 부추겨 황소를 쫓아내는 야만적인 놀이(bullbaiting; 소 쫓리기)가 성행했다. 묶여 있는 황소를 사나운 개들이 공격하게 만들어 결국 개와 황소 모두를 끔찍하게 죽이거나 불구로 만드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이지만 대중에게는 인기 있는 관행이었다. 동료 의원들의 도움으로 1802년 월버포스는 이 관습과 다른 형태의 동물 학대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을 후원하기 시작한 이래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1822년 비로스 소들에 대한 잔인하고 부적절한 처우를 막기 위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 1824년에는 ‘동물학대방지협회’를 결성했는데 많은 역사학자가 이 사건을 현대 동물 보호 시대의 시작이라고 본다.

그런데 지금은 동물 보호가 아니라 사람과 동물을 동등하게 보려 하거나 사람을 동물보다 덜 귀하게 생각하는 게 문제다. 올해 6월 한 단체가 뉴욕주 브롱스 동물원이 인지 능력을 보이는 코끼리 ‘해피’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브롱스 동물원을 고소했다. 이로 인해 뉴욕주 법원이 코끼리 해피에게 법인격을

부여해서는(법적인 인간으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판결까지 내려야 했다. 이 사건의 주심 판사는 ‘아무도 코끼리의 놀라운 인지 능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지만... 인신보호영장 제도는 동물이 아니라 불법적으로 구속된 인간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적 수단이며 해피에게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안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썼다.

알렉산드라 수이치는 <이코노미스트>에서 인간의 이름을 개와 고양이에게 붙이는 일이 흔해지고 있고, 반려동물의 사료가 점점 더 사람들의 음식과 비슷해진다고 보았다. 천문학적 금액이 반려동물 관련 물품에 지출된다. 대다수 미국인이 애완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본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버지니아 주지사였던 랄프 노섬은 동물 학대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에 서명하는 한편, 임신 후기의 낙태 제한을 완화하는 법안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런던타임즈>는 ‘고통스러운 죽음’에서 사람을 구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는 응답자보다 개를 구하기 위해 돈을 쓰겠다는 응답자가 더 많은, 즉 사람들이 인간보다 개에 더 많이 공감한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노스이스턴대학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생들에게 네 명의 학대 피해자들(강아지, 성견, 유아, 30세 성인)에 대한 가짜 기사를 보여줬는데 응답자들이 학대받는 성인의 고통보다 학대받는 강아지나 개에 가해진 고통을 더 괴로워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게다가 오늘날 여러 단체가 동물 학대를 막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동물의 권리를 위해 로

비한다. 최근 케임브리지대학교는 동물권리법을 연구하고 홍보하는 유럽 최초의 센터를 설립해 동물들이 식용으로 사육되어야 하는지, 실험에 사용되어야 하는지, 잡혀 죽어야 하는지, 동물원에서 사육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계획이라 밝혔다. 이것은 생명, 자유, 심지어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를 가진 일부 동물들을 ‘사람은 아닌 인격체(non-human person)’로 지정하려는 시도라고 한다.

이 법안이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

동물이 사람과 동등해 보이거나 동물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문화는 결국 인간과 동물 모두에게 해롭다. 만약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동물들은 인간과 동일한 권리를 갖지 말아야 하는 걸까? 권리가 우리를 설계하신 그 방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선택지란 ‘자기 인식’이나 지능 같은 어느 정도 미온적인 기준에서 그 권리의 근거를 찾는다. 하지만 그러한 사고방식은 특정한 상태(예: 자기 인식을 할 수 없는 상태)의 인간에게는 인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만든다. 이는 낙태, 조력 자살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우리가 동물일 뿐이고 따라서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을 돌볼 지상 명령이 없다면 사람이 다른 동물을 친절하게 대하거나 복지를 존중해야 할 이유도 없어진다.

월버포스는 “의인은 자기의 가족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공혈은 잔인이나니라”(잠 12:10)는 말씀에 따라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에 대해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고 믿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인간을 보호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알았다. 그렇기에 그는 동물 학대는 물론, 영국의 노예제도에 맞서 싸우고 결국 이 제도를 폐지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우리는 월버포스가 평생 실천했던 이 신념,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은 피조물을 선하게 관리하고 다스려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동물과 인간을 동등하게 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

G. K. 체스터튼은 동물을 숭배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간이 희생된다고 한 적이 있다. 그 말에 부응하듯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간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일례로 반려동물이 실제 사람인 가족을 대체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상황은 실제 결혼과 출산을 적극적으로 지연시키고 낙태와 조력 자살의 증가를 수반한다) 폐기되어야 한다. 인권에 관한 한 오직 기독교만이 확고한 기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내 욕망에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으라!

“여자 친구와 사귀고 있는데 데이트할 때마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여자 친구와 더 진한 스킨십을 하고 싶어집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혼전순결을 지켜야 하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역식이 개방적인 요즘, 많은 미혼 청년들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하며 살아간다. 그 고민이 좋은 결론에 도달하면 좋겠는데 청년들이 많은 부분을 합리화하며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타협점을 찾으려는 것 같다. 미혼 기독교 청년 52%가 이미 성관계를 경험했다는 조사가 있을 정도로 크리스천의 성 윤리도 자유롭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청년들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묻는다면 그 누구도 떳떳하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자기합리화하며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선택이라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는 굳이 설명하

지 않아도 답을 알 것이다.

이성 친구와 사귄 때 어디까지가 스킨십의 범위냐고 묻는 청년들에게 내가 항상 하는 대답이 있다. 지금 두 사람이 고민하는 그 순간까지가 혹은 바로 그 전 단계가 가장 건강한 스킨십의 범위라고 말한다. 고민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는 의미이고, 목사에게 그 답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마음이 들 가능성이 커서 그렇게 대답해주는 것이다. 많은 청년이 연애를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 배우고, 주변 커플들을 통해 배운다. 그 정보들에 비해서 성경 말씀과 교회가 이야기하는 연애의 기준은 너무 보수적이고, 구시대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요한일서 4장의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고백처럼 모든 사랑의 원조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을 통해 배우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온전하다. 세대의 고정관념을 넘어 말씀을 따르는 사랑을 할 때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는 것을 사랑의 모습으로 말씀하

신다. 성적인 관계는 부부라는 약속 아래에서 아름다운 축복이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성적 관계는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남기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자주 세상과 타협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려 하는가? 하나님과 말씀 앞에서 당당할 수 있도록 스킨십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What would Jesus do)?”를 외치고, 내 감정이 원하는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크리스천 청년들이 되기를 소망해 본다. 그래서 나는 신앙 안에서 만나는 커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한다.

“만남을 시작하기 전에 두 사람 함께 앉아 가장 이성적일 때 스킨십의 기준을 정하라.”

뒤늦게 감정의 지배를 받은 후에는 스킨십의 범위를 정하는데 너무 관대해지기 때문이다. 만남의 초기부터 두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부끄럽지 않은 스킨십 범위를 함께 정하고, 그 범위를 넘어서려고 한다면 누가 되었든 단호하게 약속을 상기시키며 절제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고 권면하고 싶다. 서로

가 사랑하기 때문에 더 깊은 스킨십으로 나가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약속 가운데 서로를 지켜줄 수 있는 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사랑하는 관계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한다. 이미 실수했다고 큰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지는 않아야 한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에게 하나님은 “다시는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과거의 실수에 매여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옳지 않은 선택을 회개하고, 반복해서 그 죄에 매이지 않도록 기도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어디까지가 연인 간 스킨십의 마지노선인가?”라는 질문을 내 욕망에 묻지 말고 예수님께 물으면 답은 언제나 명쾌할 것이다.



최성민 목사
(SNS청년부)

크리스천을 위한 부부상담

소소한 것이 쌓여 큰 신뢰가 된다!

부부는 종종 서로의 부탁을 잊어버리곤 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성할 수 있도록 타임을 맞춰 놓는 등의 방식을 취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사무실이나 작업 현장에서 사용할 것 같은 방식이지만 가정에서도 필요에 따라 사용하면 서로의 부탁을 잊지 않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가정에서 소소한 부탁을 잊어서 갈등을 빚는 예시를 살펴보자. “여보 10분 뒤에 가스 불 좀 꺼주세요”라는 아내의 부탁에 남편은 “어! 알았어!”라고 대답하고는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 뭐 하고 있었어? 음식이 다 타 버렸잖아!”라는 아내의 타박이 돌아온다. 가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주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아내와 남편은 서로에게 불쾌하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된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분위기가 더욱 냉랭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아내는 자신이 부탁한 일을 잊어버린 남편에게 몹시 서운한 마음을 갖게 될 것이다. 물론 남편도 가정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아내가 가정에서 신경 써야 하는 일이 비교적 더 많은 것이 현실인 것 같다. 혼자 처리하기에 벅찬 경우도 있다. 정신없는 저녁 시간에는 함께 가사를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편은 소소한 것이라고 여겨지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가사에 참여해야 한다. 가스 불을 끄는 것, 쓰레기를 버려주는 것, 아이들 목욕을 시켜주는 일 등등 하루

가 가기 전에 처리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다. 배우자가 일이 많아서 상대 배우자에게 가사를 부탁했다면 꼼꼼하게 기억해서 처리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소소한 일이라고 생각한 일들을 위임받았을 때 신경 써서 수행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가사는 소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이 대부분이다. 아기 목욕을 시키는 일은 하루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이 아니다. 가스 불 잠그는 것도 매일 반복되는 그저 사소한 일이 아니다. 정한 시간에 가스 불을 끄지 못해서 음식이 타버린다면 그날 저녁에 누릴 수 있는 행복이 사라질 수도 있다. 소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일이 가사다. 따라서 배우자가 부탁하는 일은 신경 써서 수행해야 한다. 만일, 가스 불 끄는 것을 부탁한 아내의 말을 잊어버리면, 남편의 부주의가 행복하고 소중한 가족의 식사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 물론, 남편과 아내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편은 남편대로 원망이 생긴다. 자신이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쩌다 발생한 실수인데 심하게 쏘아붙인다는 생각에 몹시 서운한 마음이 생긴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남편의 자존심보다 중요한가?’라고 서운해 하기도 한다. 사람은 누구나 책망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 책망을 들었을 때는 몹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 당연하다. 배우자에게 쏟아낸 심한 핀잔과 책망

은 서로의 마음과 관계에 쌓여있었던 부정적 에너지 풍선을 터트리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일방적으로 책망을 들으면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런 반응이다. 부탁을 잊어버려서 요리를 망친 배우자가 “그냥 이것 안 먹으면 되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부탁했던 배우자는 자신의 부탁이 소홀이 여겨지고, 결과적으로 요리를 망쳐버렸다는 생각에 몹시 화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건강한 부부는 서로의 부탁과 서로의 관심사에 신경을 쓴다. 서로가 부탁하는 일을 우선 수행하려고 한다. 그리고 잊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 이것은 서로에 대한 공감과 관심의 확대라고 할 수 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배우자의 말을 마음에 새긴다. 사랑은 서로가 좋아하는 일은 실천하고, 좋아하지 않는 일은 그만두는 특징이 있다. 가정에서 배우자의 부탁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실행 할 수 있도록 자극 받을 방법을 찾는 것이 좋다. 예를 들면 타이머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정시에 출근하기 위해서, 또 일정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알람을 설정해 놓는다. 부탁받은 가사 일을 자주 잊어버린다면,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고 수행하지 않는다면, 부탁받은 일에 알람을 맞춰서 실행에 옮기도록 자극받는 장치를 준비하는 게 도움이 된다. 배우자에게 부탁받은 일을 잊지 않고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이게 된다. 생활의 소소한 것들이 모여서 큰 신

뢰를 쌓는다. 배우자가 부탁했던 일들을 습관적으로 잊어버리고, 수행하지 못했던 배우자가 부탁을 성실하고 꾸준히 수행한다면 자연스럽게 신뢰와 믿음이 쌓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작고 소소한 일이라고 간과하면서 자주 소홀히 하고 망각해 버리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신뢰를 얻는 것이 매우 어려워진다. 이것이 쌓이면서 부정적인 인식이 심각하게 고착되면 ‘당신은 항상 잊어버리고 날 화나게 해’라는 실망감이 각인 될 수도 있다.

최근에 자신이 잊어버렸던 배우자의 부탁은 무엇인지 돌아보면 좋겠다. 그 일이 발생하고 나서 자신의 실수를 담담하게 인정했는지 아니면 도리어 큰소리치면서 화를 냈는지도 돌아보면 좋겠다. 만일 자신이 습관적으로 배우자의 부탁을 잊어버린다면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행동지침을 정해보면 좋겠다. 실행 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미루지 않고, 즉시 성을 갖고, 적절히 수행한 후 자신의 시간을 보내야 하겠다. 사랑은 소소한 것이 쌓여 더 깊어지고, 신뢰가 발전한다(마 21: 28~31).



황규복 박사,
김숙경 소장 부부
(두란노 결혼예비학교
부부강사, <그런 당신이
좋다> 저자)

문화해설사가 들려주는 ‘기독교문화재’ - 충남 논산의 ‘병촌성결교회’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충남 논산시 성동면 개척리, 병촌리 일대는 드넓은 농경지가 풍요로움을 자랑한다.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아름다운 금강(錦江)과 지류인 강경천이 만나는 까닭이다. 가을 들녘의 풍요로움이 마음마저 여유롭게 만드는 그곳에 병촌성결교회가 있다.

병촌성결교회는 1933년 강경성결교회의 도움으로 세워졌다. 당시 병촌리 일대 성도들은 걸어서 강경에 있는 교회를 다녔다. 그러나 교통이 불편해서 예배 출석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그곳 성도들을 위한 교회가 마을에 필요했다. 당시 강경성결교회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등 단단한 신앙으로 소문나 있었다. 새로 개척된 병촌교회에도 신사참배 강요가 밀어닥쳤다. 그러나 병촌교회 성도들은 일제의 회유와 압박에 굴하지 않고 과감히 거부했다. 그 성도들은 이미 강경성결교회 출석 당시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이들이었다. 거부의 결과 교회가 강제로 폐쇄당했다(1942). 예배당은 강제로 문을 닫았지만, 가정교회로 신앙을 지켜오던 성도들은 해방 후 교회 문을 열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러나 그 기쁨도 잠시였다. 1950년 한국전쟁이 터졌고, 논산과 강경지역도 공산군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풍요로운 이곳을 점령한 공산군은 농작물을 강제로 빼앗고, 그들의 요구대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살해했다. 1950년 9월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자 북으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충남 논산의 ‘병촌성결교회’.

로 후퇴하게 된 공산군이 이 지역 지주와 경찰관, 군인 가족들을 잔인하게 학살했다. ‘반동분자’로 낙인찍힌 병촌성결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9월 27일과 28일 무려 66명이 학살당했다. 당시 정수일 집사(여, 31세)는 10명의 가족과 둘러앉아 기도와 찬송을 했다. 죽이려는 이들에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외쳤다. 예수를 버리면 살려주겠다는 공산군의 회유를 거부하고, “주여, 내 영혼 받으소서”라고 기도했다. 이렇게 병촌성결교회 성도 66명은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았다. 이때 교회 성도 74명 중에서 66명이 순교했다. 남녀노소 모두 거룩한 믿음의 경주를 다했다. 8명(어린이 포함)의 성도만이 살아남았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공산군이 물

러난 뒤 교회를 재건하는 일을 서둘렀다. 그들은 공산 세력에 가담했던 마을 사람들을 용서하고 포용하며 교회를 재건했다. 십자가에서도 용서를 보여주셨던 예수님 사랑을 순종하며 따랐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용서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다.

병촌성결교회로 들어서면 여러 기념물이 있다. 그 자체만으로도 예사롭지 않은 곳임을 직감한다. 교회는 두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른쪽에는 1956년 세워진 순교자기념교회가, 왼쪽에는 1981년 건립한 예배당이 있다. 주차장 한편에는 순교자 기념탑이 있고, 기념탑 곁에는 순교자의 묘가 있다.

죽음 앞에서도 당당했던 성도들의 무덤을 보고 있으면 내 안의 믿음을 점검하게 된다.

전우치가 심었다고 전해지는 은행나무가 수백 년 연륜을 자랑하고 있는데 그 옆에 순교자기념관이 있다. 내부로 들어가면 순교자들의 이름이 나무패에 기록되어 있다. ‘故 무명 유아 성도(1950년생~1950.9.28)’라는 패가 눈에 띈다. 이름 없는 성도도 있었다. 그들 모두 하나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으리라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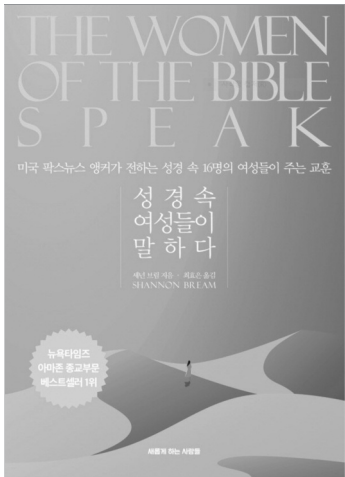
은행나무 아래 걸터앉아 교회를 바라보며 순교에 대해 묵상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어떤 길을 걷게 될지 알 수 없다. 우리 앞에 어떤 난관이 닥칠지도 모른다. 1950년 같은 상황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과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 어느 날 갑자기 순교자 신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제강점기부터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믿음을 굽히지 않았던 성도들이었기에 1950년 공산군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다. 순교자의 삶은 오늘 나에게도 요구되는 실제적 신앙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에서 내 의지와 생각을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을까?



임찬웅 성도
(남양주온누리교회, 문화해설사, <강화도 (준엄한 배움의 길)> 저자)

신간 소개

믿음의 여성들을 만나다!



《성경 속 여성들이 말한다》
세년 브림 저 | 새롭게 하는 사람들 |
15,000원

’, 라헬과 레아 ‘경쟁하는 자매들’, 다말과 룓 ‘아웃사이드’, 드보라와 야엘 ‘여전사들’, 한나와 미리암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다’, 에스더와 라합 ‘뜻밖의 믿음의 영웅들’, 마리아와 마르다 ‘두 갈래의 길’,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복음의 증인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써 내려간다. 이 외에도 예수님이 만나주셨던 여성들의 이야기도 담았다.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의 도전을 얻고 싶은 성도들에게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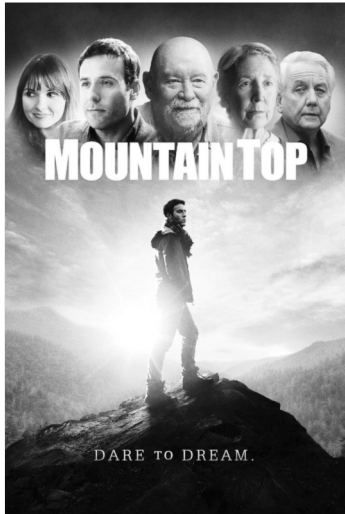
성경에는 많은 여성이 등장한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여성들이 그다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 결코 아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여성들이 성경 이야기의 중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미국 뉴스채널 ‘팩스 뉴스(Fox News)’의 앵커이자 수석 법률 특파원 세년 브림이 책 《성경 속 여성들이 말하다》에서 성경 속 믿음의 여인들을 소개한다. 그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믿음을 지켰는지, 또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는지를 자세하고 흥미 있게 풀어간다. 성경 속 여성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절망과 고난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도전의 메시지도 전한다.

책 《성경 속 여성들이 말하다》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인 16명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루는 대신 두 명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묶어서 주제별로 소개한다. 사라와 하갈 ‘언약의 여인들

기독교 OTT ‘풍당’ 콘텐츠

“가라시면 가야지요”



‘Mountain Top’ (마운틴 탑)

기에는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잘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가시밭길을 걷게 될까 두려워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우리의 선택은 순종이다. 영화 ‘Mountain Top’의 주인공 샘 처럼 말이다.

“가라시면 가야지요”

시청안내: 기독교 OTT ‘풍당’

애플레치아 산맥의 작은 마을에서 목회하는 앤드루스 목사에게 어느 날 한 여자가 찾아온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남편이 자기를 그곳으로 보냈으며 사정을 털어놓는다. 괴짜로 평가받는 그녀의 남편 샘이 어느 날 갑자기 돈을 횡령했다는 누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때때로 샘에게 꿈을 통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감옥에 있는 그에게 앤드루스 목사의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좀처럼 믿기지 않았지만, 앤드루스 목사는 샘을 찾아간다. 정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다는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기다린다.

6년 동안 변호하지 않았던 전직 변호사 앤드루스 목사는 샘을 위해 다시 법정에 선다. 샘과 함께 사건의 전말을 파헤친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며 묵하면 꿈에서 환상을 보는 샘과 목사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란 생각했던 앤드루스의 궁합이 좋지만은 않다. 샘과 앤드루스가 어떻게 미국에서 빠져나올까? 산꼭대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특별행사 ‘C.S. 루이스의 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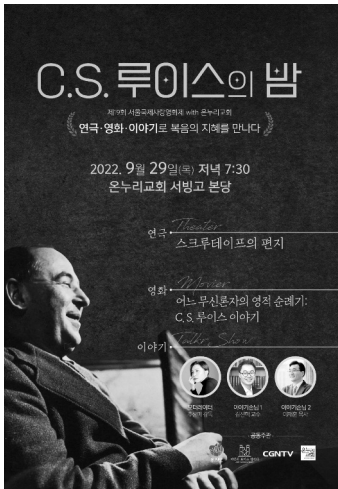
9월 29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본당

서울국제사랑영화제 특별행사 ‘C.S. 루이스의 밤’이 9월 29일(목)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SIAFF), 아진과 보아스 컴퍼니, CGNTV, 온누리교회가 공동주관한다.

‘C.S. 루이스의 밤’은 1부 연극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2부 영화 ‘어느 무신론자의 영적 순례기: C.S. 루이스 이야기’, 3부 토크쇼 ‘이야기’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토크쇼에는 이재훈 담임목사, 추상미 감독, 김진혁 교수가 게스트로 출연한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경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선’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기독교의 아가페적 사랑의 가치를 담아낸 국내외 영화를 소개한다. 올해 19회 영화제에서는 총 18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9월 27일 오후 7시 한국영상자료원 1관에서 개막하며 10월 2일까지 신촌 필름포럼과 온라인 플랫폼 ‘온피프엔’(www.onfifn.com)에서 상영한다. 자세한 안내 및 예매는 영화제 홈페이지(www.siaff.kr)에서 할 수 있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영종온누리교회 개척예배

10월 2일부터 매주 주일 오전 9시, 11시

영종온누리교회 개척예배를 드린 다. 10월 2일(주일)부터 올해 말까지 임시예배당(인천 중구 중산동 1883-9 하늘프라자 403호)에서 매주 주일 오전 9시와 11시에 예배를 드린다.

영종온누리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예배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특히 영상과 음향기기를 다룰 줄 아는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종온누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전화(제치윤 목사 010-4046-7601)로 문의하면 된다.

영종온누리교회는 2019년 전영한 대표(하남주식회사)가 인천시 중구 운남동 1709-3번지에 2028㎡ 규모의 땅을 교회를 건축해달라며 기증해 지난해 3월 착공했다. 올해 12월 완공 예정이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재정문제에서 자유를!”

‘부채탈출 119’ 참가자 50명 선착순 모집

사회선교본부에서 ‘부채탈출 119’ 참가자를 50명 선착순 모집한다. ‘부채탈출 119’는 재정상담 및 법률상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개인 부채나 가계부채를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맞춤형 프로그램이다. 온누리교회 성도가 추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온누리교회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메일(skyaiaman@naver.com) 또는 팩스(02-6455-2644)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2636-3777
02-3215-3434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 모집

9월 28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

두란노어머니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9월 28일부터 10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9월 23일까지 아이스쿨이나 두란노어머니학교 홈페이지(www.mother.or.kr)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12만 원.

두란노어머니학교는 행복한 아내, 좋은 어머니가 되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에 덕을 세우며, 사회를 변화시키는 여성으로 교육하는 과

정이다. ‘성경적 여성상의 회복’, ‘아내의 사명’, ‘자녀 양육’, ‘기도하는 어머니’, ‘십자가와 사명’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한편 두란노어머니학교 P.P(Power Prayer) 기도회가 9월 26일(월) 오전 10시 30분 양재온누리교회 JDS홀에서 열린다. 가정과 사역,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어머니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2182-9114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 모집

온누리신문 ‘말씀과 기도’ 지면에 게재할 말씀 해설 요청 및 기도제목을 모집한다.

말씀과 기도 지면은 성도들이 평소 궁금했던 말씀을 온누리교회 교역자들이 쉽게 해석해주고, 한 주 묵상할 큐티 본문을 미리 살펴보고, 성도들의 긴급한 기도제목을 놓고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함께 기도하는 장(場)이다.

평소 궁금했던 말씀에 대한 해설 요청과 중보기도 제목을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온누리신문에 그 내용을 게재한다.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름, 소속, 공동체,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한다. 중보기도 요청은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어린이신문 차세대 작품 모집

온누리신문의 어린이신문 ‘우리들 작품’ 코너에 실을 차세대들의 작품을 모집한다. 차세대들의 신앙 관련 글, 시, 그림, 만들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서 이메일(hha0@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작품을 보낼 때는 ‘작품 제목, 작품 설명, 이름, 소속, 연락처, 주소’를 꼭 기록해야 한다. 차세대들이 보낸 작품은 온누리신문에 게재되고, 추천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준다. 온누리교회 소속 차세대라면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문의: 02-6959-0001

‘아빠 캠핑 가자!’

10월 2~3일, 춘천 왕터리조트

아빠를 위한 맞춤형 ‘아빠 캠핑 가자!’가 10월 2~3일 강원도 춘천 왕터리조트(강원도 춘천시 남면 박암리 9-1) 카라반존에서 진행된다.

아빠 캠핑 가지는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아빠들을 전도하는 장(場)이다. 아빠와 함께 가족이 카라반 캠핑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린다. 아이스 브레이킹, 불명, 가족 대화, 롤링페이퍼, 가족산책, 보물찾기, 세족식 등의 프로그램 등이 이어진다. 문의: 02-3215-3214 / 정현주 기자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강생 모집

10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전 10시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 수강생을 모집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양지 비전빌리지에서 진행된다. 4주차는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하가훈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치유하고, 은혜의 눈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 하

나님의 가정을 만들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피플퍼즐’, ‘부부치유&연합’, ‘부부의 성’, ‘자녀교육’, ‘가정제도의 원리’ 등을 주제로 6주 동안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0월 9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20만 원.

문의: 010-9242-9350(서빙고) 010-4429-5025(양재)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10월 15일부터 매주 토 오후 3시

젊은부부학교 참가자를 모집한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진행된다(10월 22일 시온홀).

젊은부부학교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게 하고, 성경적인 바른 가정을 세워가도록 돕는 가정회복훈련 프로그램이

다. ‘성경적 결혼관’, ‘부부연합’, ‘부부회복’, ‘부부의 사명’, ‘축복의 가정’ 등을 주제로 강의가 이어진다. 수강신청은 10월 8일까지 아이스쿨에서 하면 된다. 참가비는 가정당 18만 원. 10월 8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3만 원을 할인해준다.

문의: 010-5368-4317



미야자키 기 · 도 · 제 · 목

- 9월 26일(월) 러브소나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가 전파되기를
- 9월 27일(화) 한일이 언어와 정치를 넘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준비하도록
- 9월 28일(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주시기를
- 9월 29일(목) 이재훈 목사와 강사들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도록
- 9월 30일(금) 가스펠나이트, 리더십포럼 등에 성령의 기름부으심이 있기를
- 10월 1일(토) 통역자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 10월 2일(주일) 출연진과 봉사자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전달 통로가 되도록

9월 세레자

- | | | | |
|------------|------------|------------|------------|
| ■ 서빙고 | 최의석 스키미호 | 이동훈 김미희 | 심재웅 991124 |
| 고유나 980803 | 최유준 220318 | 장유진 211128 | 왕의석 990312 |
| 김진경 890215 | 최제하 유현정 | 장웅준 김미진 | 황지현 970715 |
| 박은정 781230 | 한지민 200925 | 조남준 210519 | 입교 |
| 오시현 910212 | 한승진 김보라 | 조성범 박혜지 | 류하민 960130 |
| 윤수란 720206 | | 최유하 201223 | 박희원 020326 |
| 윤자경 197003 | ■ 양재 | 최기성 강은아 | |
| 이우림 961212 | 김민화 840727 | 한 결 190204 | ■ 차세대 |
| 입교 | 백철호 710827 | 한보순 민정원 | 양재 |
| 이슬빈 941209 | 한미정 890506 | 한루아 181021 | 김예영 070126 |
| 이희창 040320 | 입교 | 한종철 최한울 | 김주호 040611 |
| 유아 | 전은진 760326 | 한지환 210308 | 석다정 070327 |
| 김정우 210105 | 최혜서 010204 | 한상훈 최혜지 | 신새봄 050227 |
| 김덕임 임채경 | 최혜진 020314 | 황주는 190514 | 이승현 070320 |
| 김하랑 220318 | 추대관 851202 | 황순호 김한나 | 이시열 061122 |
| 김용상 정혜윤 | 유아 | 황주안 201219 | 임보민 050430 |
| 김한빛 200909 | 김로암 220103 | 황순호 김한나 | 정 원 070420 |
| 김승호 심성순 | 김현진 이지나 | | |
| 마해준 210916 | 김주아 190923 | ■ 대학청년 | 도곡 |
| 마중숙 황은영 | 김태영 장유정 | J4U | 민주아 071226 |
| 박이훈 191121 | 김주연 200529 | 한창경 960308 | 이건화 070813 |
| 박장환 정태화 | 김정원 이현주 | | 입교 |
| 신영준 220111 | 박은성 200812 | 하늘 | 김록희 070811 |
| 신준환 서지형 | 박윤배 김진수 | 임동우 020702 | 박하영 070910 |
| 윤 샘 200610 | 송리예 210312 | 입교 | 손민준 070212 |
| 윤진욱 박희정 | 송기선 박미선 | 이유나 941117 | 송지원 070618 |
| 이예담 200731 | 신서원 200714 | 이윤서 030518 | 유정우 070718 |
| 이현민 홍지수 | 신직수 윤혜임 | 정예지 990309 | 이소율 070710 |
| 이예린 190903 | 양서아 210405 | | 이시형 070611 |
| 이현민 홍지수 | 양재현 배수현 | 허브 | 이유준 070817 |
| 최유신 201115 | 이서윤 200405 | 김혜린 961129 | 편규태 070510 |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참가자 간증



/ 소혜영 성도(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

나에게 온누리 온라인커뮤니티(이하 온라인 커뮤니티)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고 싶다는 기도의 응답이다. 2011년 대만인과 결혼하고 지금까지 대만에서 살고 있다.

나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주일에 교회에 나가 예배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다. 하지만 20대 중반 이후 해외에서 생활하느라 한국 교회에 정식으로 등록해서 출석할 수 없었다. 대만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가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큰 도시가 아니다. 한인교회도 없다. 현지 교회에 나가보려고도 했는데 나의 중국어 실력이 초급 수준이었다. 대만 목사님들의 설교를 알아듣는 데 한계가 있었다.

어느 날, 중국어를 배우는 곳에서 알게 된 외국인 친구에게 영어로 동시통역 해주는 교회를 소개받았다. 대만어로 드리는 예배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영어로 설교를 동시통역해주는 유일한 교회였기 때문에 감지덕지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 대만 사람들과 함께 그룹 모임을 하고, 영어로 하는 외국인 소그룹에도 참여했다.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알아듣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했다. 그럼에도 마음 한편에는 한국어로 말

나를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

씀을 듣고 찬양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하고 싶은 갈급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국의 예배 말씀을 찾아 들었다. 그렇게 갈급함을 달래던 어느 날 우연히 온라인커뮤니티 소식을 들었다. 이재훈 목사님이 온라인커뮤니티를 시작할 거라고 광고하셨다. 너무 신기했다. 마치 나를 위해 주님이 예비해 주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온라인커뮤니티에서 한국어로 소통하고 예배드리는 것만으로 숨통이 트이는 느낌이 들었다. 좋은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매주 온라인으로 팀원들을 만나서 나누는 그 시간이 정말 값지고 즐겁다. 온라인 모임이지만 서로 소통하고, 힘든 일들을 나누면서 중보기도 해주는 좋은 동역자들이 되어주고 있다. 한국에 잠깐 나왔는데 마침 온라인커뮤니티 종강 파티가 있는 날이었다. 평소 모니터로만 보던 목사님들과 스태프들, 팀원들을 만나서 정말 즐겁고 반가웠다. 세심하게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목사님들과 스태프들을 보면서 감동했다. 나처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릴 수 없는 성도님들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참여해서 은혜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한다.

세례 간증



/ 박은정 성도(강서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것도,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내 의지대로 되는 줄 알았다. 대학생이 되고 친구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한 친언니가 하나님을 만나고부터 나를 끊임없이 전도했다. 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몇 번 교회에 나갔지만 그때뿐이었다. 언니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도망 다니기 바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고 다시 교회를 나가보기로 마음먹었지만, 남편을 만나고 또 다시 교회와 멀어졌다. 그렇게 내 인생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고난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결혼 이후 독박육아와 직장생활로 점점 지쳐갔다.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눈덩이처럼 커졌다. ‘더는 이렇게 살 의미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내 인생에 죽을 고비를 맞았다. 내 나이 마흔, 첫 건강검진에서 믿기 힘든 결과를 들어야 했다.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대로 죽는 건가 싶어 하염없이 울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불러주셨다.

나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셨던 친언니와 알고 지낸 온누리교회 성도님 덕분에 험난한 과

내 삶에 평화를 주셨다!

정에서 수술만 받고 항암치료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적 같은 결과를 들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정말 일하고 계심을 보고 체험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어졌다.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어졌다.

온누리교회에 등록하고 일대일제자양육을 받으면서 전혀 몰랐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낯설기만 했던 순예배는 서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나누고, 그 속에서 은혜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해줬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는데 차츰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평화를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숨 쉬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게 해주셨다.

이제는 남편과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인 것 같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동일하게 흘러가기를 기도한다.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만나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 수료 간증



/ 조현우, 김혜영 가정(대전온누리교회)

하나님의가정훈련학교(이하 하가훈)에 입학하기 전에는 그 효과를 반신반의했다. ‘6주 훈련받는다’고 달라지겠냐’, ‘어떤 훈련을 받기에 주변에서 그렇게 추천하는지 한 번 들어보자’, ‘황금 같은 주말에 6번씩이나 참석해야 하는데 너무 힘들지 않을까?’ 등 부끄러운 생각들이 가득했다. 그 불안을 안고 하가훈 1주차 훈련을 시작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이제는 익숙해진 온라인(Zoom)으로 형제자매들을 만났다. 다소 어색했지만 설레기도 했다. 자기소개를 마치고 대학교나 직장에서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지내기 위해 무엇이 해왔던 심리검사를 했다. 생각해보더니 평생 살아갈 아내와는 이런 심리검사를 해본 적 없고, 아내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도 모르고 있었다. 고작 몇 년 같이 일할 동료와는 잘 지내보려고 노력하는데, 평생 함께할 나의 동반자와는 왜 심리검사를 해볼 생각조차 안 했는지 깊이 반성했다. 성격유형을 성격적으로 접근하는 ‘피플퍼즐 검사’를 통해서 아내를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배려하게 되었다. 더불어 지난 10년 동안 왜 우리가 다뤘는지, 왜 그렇게 서로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제2의 하나님의 가정을!

매주 강의가 정말 좋았다. 강사님들의 주옥같은 말씀이 매마른 가정생활에 촉촉한 단비가 되었다. 갈라진 내 마음을 흠뻑 적시며 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특히 깊은 은혜를 받은 프로그램은 조별 나눔이었다. 부부간의 일이라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은밀한 이야기들을 터놓을 수 있었다. 왜 우리 부부에게만 문제와 갈등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부끄러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방향인지에 대한 무지 등 영원히 답이 없을 것 같았던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조별 나눔에서 얻을 수 있었다. 결혼 선배인 형제자매님들이 진솔하고 편안하게 나눠 주신 말씀이 마음속 깊이 공감되고, 내 삶에 큰 위안과 용기를 주었다.

하가훈을 통해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과 처음부터 모르고 있던 것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달라질 수 있었다. 이제는 더 멋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겠다는 희망과 용기가 생겼다. 하가훈에서 배운 말씀과 형제자매들의 소중한 나눔을 교훈 삼아 새로운 남편, 아버지, 아들로서 제2의 하나님의 가정을 힘차게 열고자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어린이 일대일제자양육 수료 간증



/ 김영일 선교사(양지온누리교회)

둘째 래미와의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마치면서 떠오른 단어가 ‘기쁨’이다. 하나님께서 정말 큰 기쁨을 매시간 부어 주셨다. 차세대 꿈이자라는땅 예배에서 광고를 듣고, 언니처럼 엄마와 일대일제자양육을 하고 싶다는 둘째 래미의 열심으로 양육이 시작됐다.

자신도 없고 부담이 되었지만,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 22-1기 막차를 탔다. 큰아이 때는 함께 울고, 힘든 이야기들도 나누면서 깊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래미와 함께 보낸 시간은 매시간 웃음이 넘치고 행복했다. 행복전도사인 래미가 비타민이 되어서 나의 에너지를 충전해줬다.

지난해 래미가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려웠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 늘 마음이 쓰였는데, 이번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하는 중에 놀라운 일들을 체험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풀리고, 좋아하는 친구를 전도하고, 찬양하는 기쁨, 예배의 기쁨, 말씀 알아가는 재미를 깨닫는 놀라운 체험의 연속이었다. 래미가 매주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 학교에서,

비타민, 에너지이저, 기쁨

교회에서, 가정에서 래미의 상황과 환경,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으로 인도하셨다. 정말 감사하다.

먼 훗날 지금의 시간을 떠올리면 참 많은 추억과 은혜가 있을 것 같다. 래미가 집중력이 흐트러져서 몸을 비틀고 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달콤해”라며 주었던 곰젤리도 생각날 것 같다. 곰젤리 하나에 분위기가 바뀌고, 다시 웃으면서 마음을 열었던 그 시간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다. 곰젤리 덕분에 달콤한 하나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된 것 같아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난다. 재미있게 목소리를 더 높이고, 칭찬 세례를 쏟아 부은 노력도 행복한 미소를 머금게 한다.

간증문을 쓰며 나눔을 정리하고, 오리엔테이션에서 한 다짐들을 돌아보는데 래미의 고백이 참 뭉클하고 감사하다. 래미가 엄마와 함께 한 일대일제자양육 책을 잘 보관해야겠다고 다짐한 것도 감사하다. 어린이일대일제자양육을 통해서 래미가 나에게 정말 소중한 비타민이자 에너지이저, 기쁨인 것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칼럼

권사칼럼

T국 형제자매들을 계속 섬기는 은혜

채필립, 조이폴 선교사
(2000선교본부)

우리 부부는 갈렙 선교사로 T국에 파송되어 섬기다가 비자 문제 등의 어려움으로 3년 만에 짧은 선교지 생활을 마쳤다. 지금은 온누리교회 선교역사연구실에서 선교역사자료를 수집 및 정리해서 책자로 발간하는 일을 섬기고 있다. 귀국 후에도 T국 선교를 위한 기도 모임에 참여하고 있다. T국에서 사역하는 온누리교회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다.

동대문중앙공동체에서는 4년 전부터 경기도 북부 도시에 있는 안디옥열방교회를 섬기고 있다. 안디옥열방교회는 T국 선교사로 20년 동안 섬기다가 귀국한 K 목사님(선교사)이 우리나라에 와있는 T국 근로자들을 섬기기 위해 설립한 교회다. 얼마 전,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은 한 형제가 신장암 말기 판정을 받아 갑자기 소천하는 아픔을 겪었다. 그 과정에서 이 교회에 출석하는 T국 형제자매들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장하는 일이 있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퍼지기 전에는 한두 달에 한 번 다락방이 돌아가면서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찬양으로 섬기며, 의료지원으로 섬겼다. 특히 정형외과를 운영하는 의사 집사님은 그들의 주치의가 되어 섬겨주셨다.

올해 동대문중앙공동체 여름 아웃리치에서는 안디옥열방교회를 직접 찾아가 섬겼다. 아웃리치를 위한 준비 과정에 우리 부부도 참여했다. 중보기도를 위해 7월 한 달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과 매일 피기도, 권사회 중보기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 매주

수요일 저녁 기도 모임에서는 아웃리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T국어로 찬양을 연습했다. 공동체 찬양팀은 금요일 저녁에 따로 모여 찬양 연습을 했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과 T국 형제자매들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짐을 체험했다.

지난 7월 31일 안디옥열방교회 주일예배에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 60여 명과 T국 형제자매 40여 명이 함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 특히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이 T국어로 연습한 찬양을 우렁차게 합창했다. 그 모습을 본 T국 형제자매들은 물론이고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도 성령 충만해졌다. 큰 감동이 있었다. 지난 8월 7일 주일에는 아침 일찍 의정부로 가서 관광버스로 T국 형제자매들을 모시고 남산한옥마을을 향했다. 필자는 역사학을 전공했다는 이유로 남산한옥마을과 국립중앙박물관 투어 해설을 맡는 은혜를 누렸다. T국 형제자매들이 평소에는 불편하고 위축된 생활을 했는데 이날만큼은 동대문중앙공동체 성도들의 섬김 덕분에 하루를 평안하고, 풍성한 시간을 보냈다. 그들이 정말 즐겁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날 이후 K 목사님에게 동대문중앙공동체의 섬김이 T국 형제자매들과 안디옥열방교회에서 사역하는 일꾼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편지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했다.

T국과 그 주변의 무슬림권을 섬기는 선교사들과 현지 사역자들, 성도들과 가족들이 안전하고 강건하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도록, 이 지역 선교가 날마다 진보와 부흥이 일어나도록, 경기 북부의 안디옥열방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과 성도들, 그 교회에 다니는 T국 근로자들과 가족들에게 영육 간 강건함과 평안이 있기를, 복음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일어나기를 기도한다.

연약함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능력

조은미 권사
(강동온누리교회)

얼마 전 일이다. 딸이 엄마도 힘든데 올 때는 추석 때 모이지 말고 당일 뮤지컬 공연이나 보고 밖에서 저녁 한 끼 외식하고 지내자고 미리 나서졌다. 고맙고 반갑기 그지없는 제안이었다. 그래도 명절인데 그냥 지나가는 서운해서 아들 내외라도 오면 한 끼라도 집밥 먹이고 싶은 마음에 바닷가재 몇 마리와 연양 불고기를 주문해 냉동실에 쥘어 놓고 명절 밀 바쁜 주부의 일상에서 해방되어 한가롭고 달콤한 여유를 즐겼다.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그동안 여러 모로 고마웠던 분들과 위로해주고 싶었던 분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작은 선물이라도 전하고 싶어서 리스트를 적어 보았다.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스무 분 남짓 고르고 골라 선물을 보냈다. 별것 아닌 선물에 감동의 답글이 쇄했다. 한가위 보름달처럼 풍요로운 마음이 들었다.

추석 전 성묘하러 시골 가는 길에 참새가 방앗간 들리듯 마침 아침고요수목원 근처 별장에 내려와 있는 중학교 동창 친구 집에 들리 중간 참을 했다. 늘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에 감동한다. 달빛 아래 촛불로 밝힌 식탁에서 둘만의 오붓한 만찬을 즐겼다. 소중한 나의 벗, 서로가 있음에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점심에는 오랜만에 고향을 지키고 있는 초등학교 동창 예닐곱이 모여 회포를 풀었다. 그 중에 오래 그림을 그린 친구가 있다. 그 친구 동생이 언니 모르게 명절 이벤트로 친구 집 뜰에서 언니 개인전을 열어주기로 했으며 전화로 귀띔해주었다. 축하하는 마음을 가득 담

아 국화 회분을 보내고 우리도 비밀 이벤트의 공모자가 되었다. 그런 동생이 있는 친구가 부럽고, 아름다운 자매의 사랑이 감동이었다. 비밀 이벤트가 열리는 다음날을 기다리며 설레이는 하루를 보냈다.

저녁 9시가 넘으니 아들 내외가 들어섰다. 반갑게 회포를 풀고 밤참으로 만두를 찌서 내주었다. 얼마나 맛나게 먹던지 덩달아 옆에서 나도 하나 거들었다. 그제 탈이나 급제라도 한 것일까? 자정이 넘어 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천장이 빙빙 돌았다.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 견딜 수 없었다. 가까운 응급실이라도 가야 할 것 같아 아들이 나설 채비를 하는데도 무지 몸을 가눌 수가 없어서 도로 주저앉았다. 기도밖에 도리가 없었다. 며느리가 옆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다. 그 순간 어지럼증이 살살 가라앉는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몇 시간의 힘든 고비를 넘기면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다. 홀로 선 듯해도 하나님께서 오늘 당장 내 목숨 거둬가신다면 내게 있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인간이 교만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큰 소리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을 들어 부끄럽게 하시는 분임을 깨닫는다. 그냥 옆드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때 가만히 손 내미시고 내 손을 잡아주신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가까스로 안정을 찾고 잠이 들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든 컨디션이 좋았다.

“오 하나님! 당신의 능력은 어찌 그리 신비하신지요!”

누구라도 하나님 없다고 큰소리치며 살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나를 불러가신다면 내가 무슨 능이 있어 막을 수 있을까? 나를 주관하시는 그 위대하신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감사를 올려드린다.

신앙에세이

박성천 목사
(관악금천공동체)

며칠 전, 새벽예배를 드리고 한강으로 조깅을 나갔다. 잠수교를 건너고 있는데 다리 아래에서 아주 작지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속으로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다가갔다. 놀랍게도 다리 아래에 50대 초반 아저씨가 교각 끝 모서리를 붙잡고 위태롭게 물에 잠겨있었다. 그분이 힘없이 말했다.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얼마나 물속에 잠겨있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한 줄기 희망을 붙잡고 버텼는지 알 수 없었지만, 파르르 떨면서 살려달라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지체없이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그분과 계속 대화해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 곧 구조대가 옵니다. 조금만 힘내세요!”

그분이 힘을 잃을 것 같아서 계속 말을 시키면서 물었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하소연했다. 자신의 인생이 바닥까지 갔다고, 그래서 술 먹고 한강에 뛰어들었다고. 물살에 떠내려오다 교각이 손에 잡혀서 마지막 힘을 다해 붙잡았다고 말이다. 그 말을 듣자마자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

“선생님이 교각을 붙잡은 게 아닙니다. 그 교각이 선생님을 붙잡은 것입니다. 선생님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신(God)이 선생님께 손을 내밀어 붙잡은 거예요!”

나의 외침에 그분이 수긍하는 눈빛을 보였다. 나는 계속해서 말했다.

“하나님이 선생님께 손을 내밀어 붙잡아주셔서 살리셨으니 이제 그 손 놓지 마시고 꼭! 붙들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셨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구조대가 도착했다. 구급대원 한 명이 몸에 밧줄을 묶고 지체없이 강물로 뛰어들어 그분을 구조했다. 그분이 무사히 구조되는 것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공동체 개강예배가 생각났다. 개강예배에서 나는 성도님들께 두 가지 미션을 드렸다. 그중 하나가 ‘대상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전도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전하자’였다. 분명 잠수교를 건너며 산책과 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내가 그분의 소리를 듣고 보게 된 것이 어찌하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위기의 순간, 나도 모르게 그분에게 진지하게 “하나님이 손을 뻗어 붙잡아주셨습니다!”라고 외쳤다.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다.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붙잡으신 것이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라”(요일 4:10).

하나님이 손을 뻗어 우리를 잡아주셨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위해 가장 큰 위험을 감수하며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구원의 방주가 우리에게 있다. 우리는 배에 탄 사람들이다. 아직 물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간절히 외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영혼을 만나게 되면 최선을 다해 손을 뻗어 잡아줘야 한다.

한 생명을 살리는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신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인생이 바닥을 치고,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육신이 병들고, 정서적으로 메말라 버린 삶일지라도 생명과 생기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마른 뼈도 살아난다. 끊어진 태도 잉태하게 된다.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성령 안에서의 자유

너무나 단순한 진리, 모두 들어서 아는 진리라고 여겨지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언젠가 들었지만 팽개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집행되었다. 그렇기에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는 단순한 복음의 소식을 가슴 깊이 새기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고, 율법적인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미신을 믿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집행되었기에 나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해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복음을 믿는 것에서부터 자유가 출발합니다. 그러나 자유는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 것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 정죄 받지 않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자유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4절 이하에서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과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을 대조합니다.

“이는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4절).

‘율법의 요구’란 율법의 의로운 요구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이를 수 없는 의로운 요구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서 ‘육신’은 우리 몸이 아니라 타락한 옛 자아의 영향력, 옛사람에게 남아있는 흔적들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7장에서 성도가 거룩한 탄식을 하게 만든 살아있는 육신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끝까지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합니다. 그 모습이 로마서 7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식에서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에 이르는 인생을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행을 갔을 때 유능한 가이드를 따라가는 것이 자

유로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따라가는 자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자유입니다. 육신을 따라 가면 자유가 아니라 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고, 출애굽은 했지만 여전히 광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습관, 사고방식, 탐욕에 묶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으로 인도받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령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은 죄와 죽음의 법으로 우리를 이끅니다. 법은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마치 중력의 법칙과 같습니다. 어떤 원리에 적용을 받습니다.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떨어 집니다. 그런데 중력의 법칙을 거슬러 하늘을 나는 새가 있고, 비행기가 있습니다. 또 다른 공기 역학의 법칙을 이용하면 계속 하늘을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죄와 죽음의 법을 따라 움직이는 육신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자유의 길인 성령을 따라 살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영원에 속한 것을 갈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등 자신의 영혼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늘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6절). 정죄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평안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고, 모든 염려와 불안을 내어 쫓고 평안합니다.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평안합니다. 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자기만을 알기 때문에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요동치는 세상 한복판에서도 평안합니다. 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하늘이 진동하고, 요동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관계에 서 있지 않은 사람은 두려워 떨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언젠가

이 지구는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하늘이 진동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흔드는 때가 올 것입니다. 불태우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때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평안합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유

“그러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 몸은 죄로 인해 죽으나 영은 의로 인해 살아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자기 영으로 인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10~11절).

10절은 현재 일어나는 일이고, 11절은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현재에 일어나는 일은 몸이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영은 의로 인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입니다. 몸은 죽은 상태입니다. 살아있으나 실체는 죽은 것입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잡시는 자랄지 모르지만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순간 아담 안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종착지는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본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몸은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은 성령으로 인해 인간의 거듭난 영이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으로 살아났습니다. 몸은 죽었으나 영은 살았습니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 현재의 상태입니다.

미래는 어떤 상태입니까?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몸의 부활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은 현재의 확신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유입니다.

세상에서 무섭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각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넘어 몸의 부활이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기밖에 더하겠어?”라고 각오하면 안 됩니다. “살기밖에 더하겠어?”라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사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정죄 받지 않았기에 자유롭게,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따르는 자유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히 흘러넘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선교지에서 온 편지

민음의 동역자님들, 잦은 폭우와 태풍 속에서 피해는 없으셨는지요? 태풍과 홍수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뉴스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사역하고 있는 파키스탄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겼고 1,500명 이상의 사망자와 3,0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아직도 많은 마을이 물에 잠겨 있는 상태이고, 도로가 유실되어 접근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는 땀겨열, 말라리아, 장티푸스, 풍토병 등으로 많은 사람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주사를 놓아줄 의료진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현지인 간사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홍수구

호 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생필품과 의약품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이 훨씬 참혹해서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합니다. 사랑과 나눔이 절실하게 필요한 이때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홍수구호에 필요한 모든 재정과 약품,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홍수로 인해서 새 학기 사역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Jesus is my Rockstar’라는 주제로 친구초청 전도잔치를 했습니다. 태권도 드라마와 간증, 레크리에이션, 복음 설교 등을 통해서 전도잔치에 참석한 새 친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민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도전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새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자녀들은 인도네시아에서 적응하기 위해 애쓰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는 지난 2년 동안 선교지와 한국을 오가며 공부했고, 지금은 다시금 선교지에서의 삶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고, 둘째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게 쉽지 않지만, 즐거움으로 잘 적응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풋살팀에 등록했는데 등록하자마자 다른 학교와 시합이 있어서 유니폼을 받지도 않은 채 경기를 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요즘 풋살을 즐겨워하는 게 적응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셉 선교사는 온라인으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선교단체 간사와 선교사로 사역한 경험이 풍부한데, 새롭게 공부를 시작하면서 원점에서 지난 경험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왜 이 땅에 있는가?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선교의 주

체는 누구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나의 제자들과 공동체는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빛과 소금으로서 지역에서 칭찬받는 공동체인가?”라는 질문들을 통해서 지난 사역을 돌아보고, 반성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통해서 교회와 선교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자연재해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연환경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폭풍과도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오는 위로와 힘으로 소망을 품고, 민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와 후원에 늘 감사드립니다.

/ 최사인 선교사(파키스탄)

하나님께 오는 위로와 힘 그리고 소망

서빙고

O2. 79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본당 2부 오전 11:00 본당 3부 오후 1:00 본당 4부 오후 3: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본당 2부 오전 9:00 본당, 비전홀 3부 오전 11:30 본당, 비전홀, 두란노홀 4부 오후 1:50 본당, 비전홀 5부 오후 4시 비전홀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본당 7부 오후 9시 본당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00 본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20 비전홀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본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본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홀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본당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본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오은규 목사

문의: 윤신혁 전도사(010-3113-5041)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김우용 대표(010-5395-2319)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아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30~8:50(Zoom)

문의: 김인옥 팀장(010-7184-3060)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종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30 서빙고 한동을

문의: 이강현 팀장(010-5594-9206)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40 경찬홀

문의: 02-3215-3707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14:00 선교관 101호, Zoom / 러시아어 13:00 선교관 301호, Youtube / 네팔어 주일 14:00 선교관 202호, 매일 첫주 군포 셀터, Zoom /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 Zoom / 페르시아어 주일 11:00 Acts29 Hall, Zoom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Facebook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Youtube, Facebook / 네 팔어 주일 10:00 Peace 303, Zoom / 캄보디아어 주 일 11:00 Peace 302, Facebook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Zoom / 필리핀, 파갈록어 주일 13:30 Onnuri Hall, Zoom / 태국어 주일 14:00 Manna hall, Youtube / 스페인어 주일 11:00 Peace 304, Youtube, Zoom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1:00 Peace 301, Facebook, Youtube, Zoom / 중국어 청년 주일 12:30 Manna hall, 다문화 꿈팡 주일 11:00 Startree, Zoom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Peace 305, Zoom / 다문화 예품 주일 11:00, 14:00 Dream Kids, Zoom / 다문화 대형 주일 12:00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6:00 스타트리 협동조합, Zoom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Peace 304, Youtube / 아랍어 11:00 Library / 열방 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Youtube

김포M센터(010-5007-3616)

캄보디아어 주일 11:00 703호, Zoom / 러시아어 14:00 703호, Facebook / 미얀마어 14:00 706호, Zoom / 파워웨이브 14:00 705호, Zoom / 꿈팡 11:00 705호, Zoom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예배 주일 11:00 301호, Zoom / 네팔어 11:00 2 센터 202호, Zoom, Facebook

평택M센터(031-651-1702)

열방예배 13:30 4층 OGA / 몽골어 주일 11:00 Love Hall, Zoom / 페르시아어 15:00 Love Hall, Zoom / 베트남어 13:30 4층 OGA 차세대 11:00 차 세대예배실, Zoom(14:00) / 열방청년예배 13:30 4 층 OGA, Zoom

남양주M센터(010-3937-3927)

열방예배(한국어) 주일 09:30 301호 / 힌디어 토요 일 19:30 301호, Zoom / 네팔어 주일 15:00 301호, messenger group, Facebook, Zoom / 차세대 11:00 302호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차세대사역본부 목요어머니기도회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0:30~12:0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서빙고(02-3215-3523)

양재(02-570-7553)

Acts29비전빌리지 서틀 운행

시간:매일예배시간: 11:30~12:30

서빙고 출발 9:30, 양재 출발 10:10

비전빌리지(양지) 출발 15:00

마리아행전, 무릎선교기도 연합기도 모임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9:45~12:30

장소: 온라인(Zoom)

문의: 여성사역 02-3215-3227

한터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있으신 분들 을 위한 공동체

일시: 매 주일 오전 10:00

장소: 서울 강서구 양천로 504 명문빌딩 7층

문의: 02-3463-9686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00 B102

문의: 이희인 집사(010-3706-5974)

제83회 성령수련회

일시: 10월 1일 9시~17시

장소: ACTS29 비전빌리지

접수: 아이스쿨

문의: 황보은선 권사(010-7120-5221)

*서빙고 버스 출발(오전 7시 30분 신동아 쇼핑센터 앞)양재 경유)

제14회 온누리 캠퍼스 한마음 축구대 회 참가선수 및 각 캠퍼스회원모집

대상: 온누리교회 성도 및 배우자

문의: 서빙고(오명석 총무 010-6470-7131), 양재(이범진 총무 010-6891-6665), 수원(박민규 총무 010-3753-4546), 남양주 (권오빈 팀장 010-5535-0119), 대전(김성 동 팀장 010-5454-9338), 부천(황근배 총무 010-4727-5258)

두란노서원 채용 공고

업무: 안드로이드 개발, IT디자이너, 웹퍼 블리셔, 웹/앱 개발 기획자, 마케터, 서점직 원(분당) 각 1명

형태: 정규직 (수습 및 사용기간 3개월), 주 5일 근무

지역: 서울 서빙고동, 분당

지원: <http://www.duranno.com/recruit/>

CMN 서울역노숙인 진료팀 모집

일시: 매달 셋째 주 목요일 오후 6:30~8:00

장소: 서울역 서부역교차로 사)참좋은친구 들 예배당

문의: 윤상엽 팀장(010-9439-1180)

새가족 만남의잔치

일시: 9월 25일 오후 6시

장소: 서빙고온누리교회 시온홀(선교관 B2)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식사는 불가하고 퇴실 시 샌드위치와 음료가 제공

양 재

O2. 573. 9686

토요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사랑홀

일요주일예배(사랑홀, 드림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금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저녁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심야예배

매주 금 오후 10: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9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30, 하용조 기념홀

문의: 최성문 팀장(010-6481-5567)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념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 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Vine 중등1~고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3부 오후 1시 5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유년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초등부: 교육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교육관 은유홀(A동 2층)

고등부: 교육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품2부: 교육관 꿈터(B동 1층)

꿈팡2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 차세대 14:00 예배

예품3부: 교육관 꿈아이홀(B동 1층)

꿈팡3부: 교육관 충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0:3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영어 차세대예배

Youth Service 11:00 도곡1교육관 기쁨홀

Kidzone 10:30 도곡2교육관 기쁨홀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렙청년부 도곡1관 기쁨홀

사랑부 예배

주일 오전 9:00(발달장애인 6세~18세), 11:20(발달장애인 대학청년) 비전홀B

문의: 김병철 목사(010-9289-3927)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8483-6210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 도곡교육관 은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 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드림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양재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러방핸드

문의: 김은지 권사(010-3285-1726)

온누리세라핌함창단 단원 모집

지휘: 최영은 성가사

모집: 초 1~중 1

연습: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4시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성가대

문의: 010-9927-4224

열린다 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일시: 10월 12일(화)~18일(월)

장소: 이스라엘 현지

대상: 이스라엘 현지를 답사하며 성경을 공부하고 싶은 성도

문의: 010-4902-1022

CMN 시온팀 동역자 모집

모집: 치과 외

사역: 여름 해외 아웃리치 및 매월 넷 째 주일 안산M센터 의료사역

문의: 이백권 팀장(010-3388-5331)

케냐 선교지 유아 영어 도서 기증 요청

모집: 5-12세 읽을 수 있는 영어 책 (학습지는 받지 않습니다)

접수: 양재 목회지원실

문의: 임정윤 간사(02-570-7469)

*게시판 광고마감 목요일 오후 4시

평택

O31.651.9680

토요주일예배

10:30 2층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본당 / 2부 11:30 본당 / 3부(영어예배) 14:00

대학청년(주일)

14:20 3층 301호

주중예배 및 모임

수요기도모임

매주 수 오후 1:30 3층 파워웨이브실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10:30 본당

수요저녁경배와찬양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4층 영아부 예배실 / 유치부 11:30 3층 예 품 예배실 / 초등부 9:00 3층 예품 예배실 / 유년부 11:30 3층 예품 예배실 / 파워웨이브 11:30 3층 파워웨 이브 예배실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인천

O32.437.9686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9:00 / 3부 11:30 / 4부 14:00

대학청년

16:00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9:00, 11:30 사이닝홀 / 유치부 9:00, 11:30 꿈아이를 / 유년부 9:00, 11:30 드림홀 / 초등부 9:00, 11:30 기쁨홀 / 파워웨이브 9:00, 11:30 소망홀

장애인예배 및 국제예배

사랑부 11:20 영상예배 / 다문화 모자이크 예배 14:00 소망홀

주중예배

수요여성예배 10:00 본당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2층 본당

강동

O2.475.9686

토요주일예배

11: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7:00 / 2부 11:30 / 3부(프라미스) 14:00 / 3부 (프라미스U) 14:00 사랑홀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기쁨홀 / 유치부 11:30 두란노홀 / 유년부 11:30 사랑홀 / 초등부 11:30 드림홀 / 중고등부 9:30 사랑홀

장애인예배

사랑부 9:00, 11:30 경찬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여성예배 10:30 본당

수요저녁예배 19:30 본당

금요기도회 20:00

새벽예배

오전 6:20 본당

양지

O31.331.8171

토요주일예배

9:00 본당

일요주일예배

1부 9:00 / 2부 11:30 / 3부(Y.대학청년) 14:30

차세대예배

영아부 11:30 드림씨드홀 / 유아부 11:30 무어홀 / 유치부 11:30 위더슨홀 / 유년부 11:30 아펜젤러홀 / 초등부 11:30 킬보른홀 / 중등부 11:30 박모세홀 / 고등부 11:30 박모세홀

주일기도모임

예배중보기도모임 주일 10:30 캠펠홀

주중예배

수요오전예배 10:30 박모세홀 or 아펜젤러홀

금요성령집회 21:00 시안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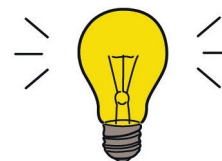
새벽예배

월~금 5:20 시안홀

CGNTV

다음세대를 위한 2022 풍당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

다음세대에게 복음을 전할 콘텐츠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응모기간

2022.

9. 26.(월) ~ 11. 6.(주일)

제출 내용

지원자 정보, 아이디어 제안 배경, 기획의도,
제안 내용, 기대효과 등이 포함된 **지원서**

목회자 추천서

프레젠테이션용 PPT(PDF 확장자로 접수)

예선 결과 발표

2022년 11월 18일

최종 PT 및 시상식

2022년 12월 2일(참여 방법 추후 공지)

응모내용

응모자격 다음세대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개인 또는 4인 이내의 팀

응모부문 영상 콘텐츠 부문, 기타 부문(웹툰, 웹 소설 등)

응모방법 구글 폼 설문 접수
(CGNTV 웹사이트, 블로그 참조)

시상내역

대상	영상 부문 1팀	상금 300만 원
최우수상	각 부문별 1팀	상금 200만 원
우수상	각 부문별 2팀	상금 50만 원

* 수상작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시상 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상자 중 일부는 CGNTV 콘텐츠 제작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

Tel. 02-3275-9322 Email. cgnpr@cgnmail.net

* 상기 내용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